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4. 11. ~ 04. 17.

전남농업정보

80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관측정보)

· 마늘·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농작물 출하 및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쌀, 중국 프리미엄 매장 공략 나선다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온·오프라인 직거래 선호도 및 장애요인 분석
· 소분지형 참깨 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 및 파종시기

정책동향

· 곤충산업규모를 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16년 버섯재배(초급) 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많겠음

❁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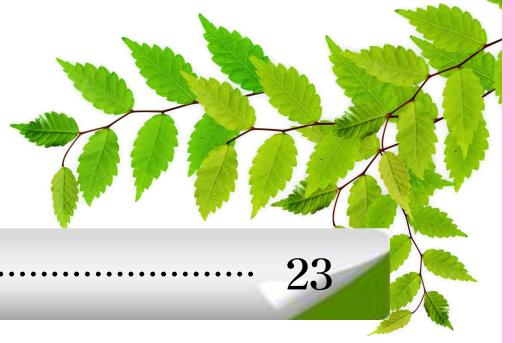
- ▶ 마늘 · 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 · 군 농정 동향 13

- ▶ 여수시, 봄철 현장 영농기술지원단 운영
- ▶ 광양시, 강소농 육성 후속교육 실시
- ▶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호홍’
- ▶ 고흥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홍보 나서
- ▶ 보성군, 맥류 붉은곰팡이병 사전 예방 철저
- ▶ 화순군, 농산물판매 촉진 위한 농가 정보화 역량 강화
- ▶ 함평군, 올해 유용미생물 160톤 공급
- ▶ 강진군, 농산업 창업가공 아카데미로 미래농업 연다
- ▶ 무안군,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 실시
- ▶ 장성군,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쉽게 하세요!’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3

- ▶ 국산 참다래 수출 길 넓힌 '별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 수출현장 애로 해결할 기술지원 총력
- ▶ 국산 쌀, 중국 프리미엄 매장 공략 나선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8

- ▶ 온·오프라인 직거래 선호도 및 장애요인 분석
- ▶ 소분지형 참깨 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 및 파종시기
- ▶ 아스파라거스 장기재배 다수확을 위한 봄 수확기간
- ▶ 아열대 채소 재배시 뿌리혹선충 관리 방안
- ▶ 친환경 벼 종자 소독으로 병해충 사전예방
- ▶ 여름철 사료작물 파종 하세요
- ▶ 도 농기원, 『스마트 팜 현장지원』 본격 출동 !
- ▶ 최고 품질벼 하이아미 완전미 수량 높이려면
- ▶ 검정쌀과 붉은쌀은 씨앗 담그는 기간이 달라요
- ▶ 매실 낙과 원인, 복숭아씨살이좀벌 제때 방제하세요
- ▶ 화학비료 대체할 풋거름 작물 경운 방법 소개

❁ 정책 동향 42

- ▶ “aT, 4월 배추·무 가격안정에 박차”
- ▶ 곤충산업규모를 '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
- ▶ 농촌진흥청, 최고 품질 벼 청품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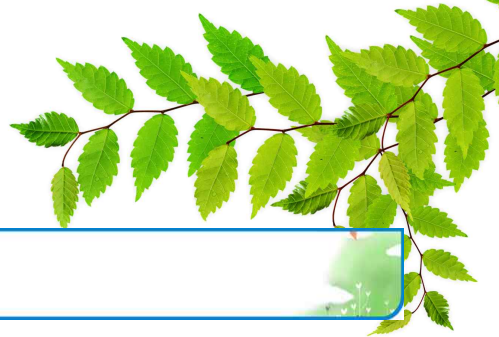
❁ 해외 농업정보 45

- ▶ 대일 수출 냉동식품, 세균 수 검사 철저
- ▶ 뉴욕타임즈 '비빔밥' 레시피 소개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4. 11.(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 농무부의 밀 파종면적 전망치 하향조정으로 전일 이익을 취한 후 상승세를 이어감.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의 옥수수 파종면적 전망치 상향조정으로 전일 큰 폭으로 하락한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금일 소폭 상승하였음.
 - 대두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유 가격 상승으로 시장간 가격지지를 받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8

- ▶ '16년 벼싯재배(초급) 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 병해충 강하고 밥맛 좋은 벼 '청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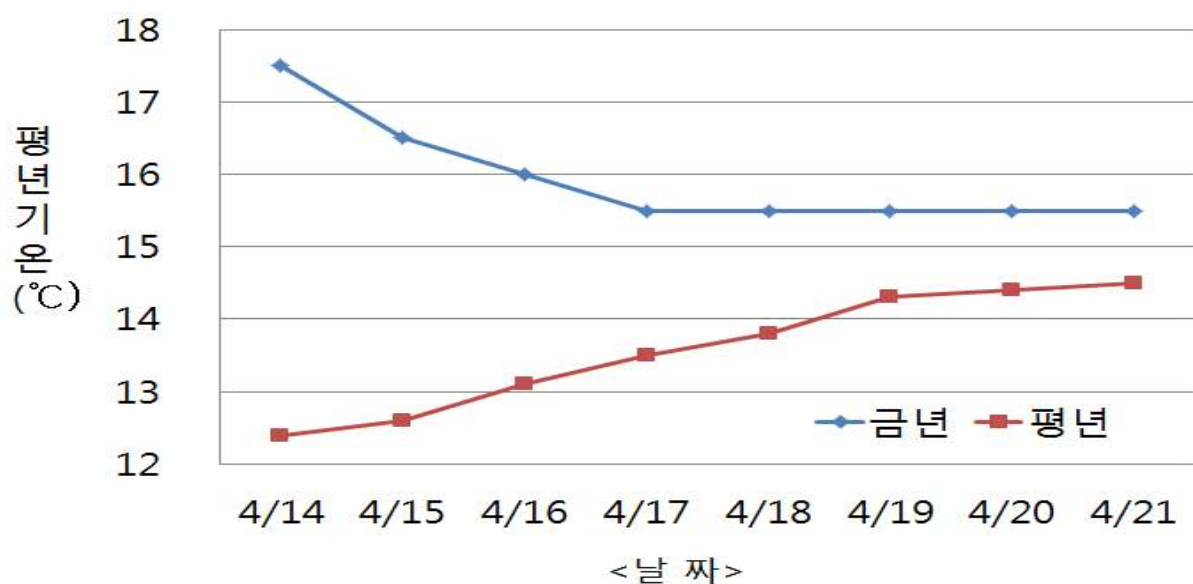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9	13.6	2.4	21.3	20.2	1.1	10.6	7.7	2.9	3.4
4. 14.(목)	17.5	12.4	5.1	23.0	19.0	4.0	12.0	6.6	5.4	1.9
4. 15.(금)	16.5	12.6	3.9	24.0	19.3	4.7	9.0	6.7	2.3	2.4
4. 16.(토)	16.0	13.1	2.9	20.0	19.9	0.1	12.0	7.2	4.8	3.6
4. 17.(일)	15.5	13.5	2.0	20.0	20.3	-0.3	11.0	7.4	3.6	3.8
4. 18.(월)	15.5	13.8	1.7	21.0	20.5	0.5	10.0	7.8	2.2	4.0
4. 19.(화)	15.5	14.3	1.2	21.0	20.8	0.2	10.0	8.4	1.6	4.5
4. 20.(수)	15.5	14.4	1.1	20.0	20.8	-0.8	11.0	8.9	2.1	4.1
4. 21.(목)	15.5	14.5	1.0	21.0	20.9	0.1	10.0	8.9	1.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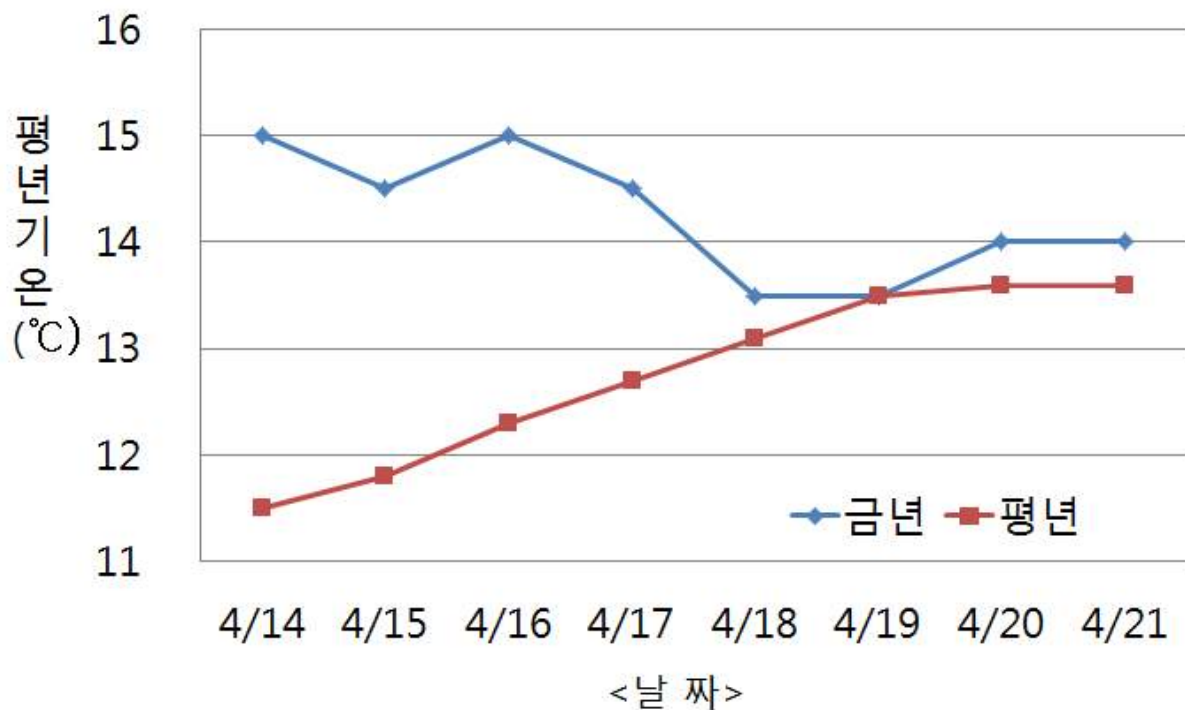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4.3	12.8	1.5	18.5	18.3	0.2	10.0	8.4	1.6	2.5
4. 14.(목)	15.0	11.5	3.5	19.0	17.2	1.8	11.0	7.3	3.7	1.5
4. 15.(금)	14.5	11.8	2.7	20.0	17.6	2.4	9.0	7.4	1.6	1.5
4. 16.(토)	15.0	12.3	2.7	19.0	18.0	1.0	11.0	7.9	3.1	2.3
4. 17.(일)	14.5	12.7	1.8	18.0	18.4	-0.4	11.0	8.2	2.8	2.5
4. 18.(월)	13.5	13.1	0.4	18.0	18.6	-0.6	9.0	8.5	0.5	2.8
4. 19.(화)	13.5	13.5	0.0	18.0	18.8	-0.8	9.0	9.1	-0.1	3.3
4. 20.(수)	14.0	13.6	0.4	18.0	19.0	-1.0	10.0	9.4	0.6	3.3
4. 21.(목)	14.0	13.6	0.4	18.0	18.9	-0.9	10.0	9.4	0.6	2.7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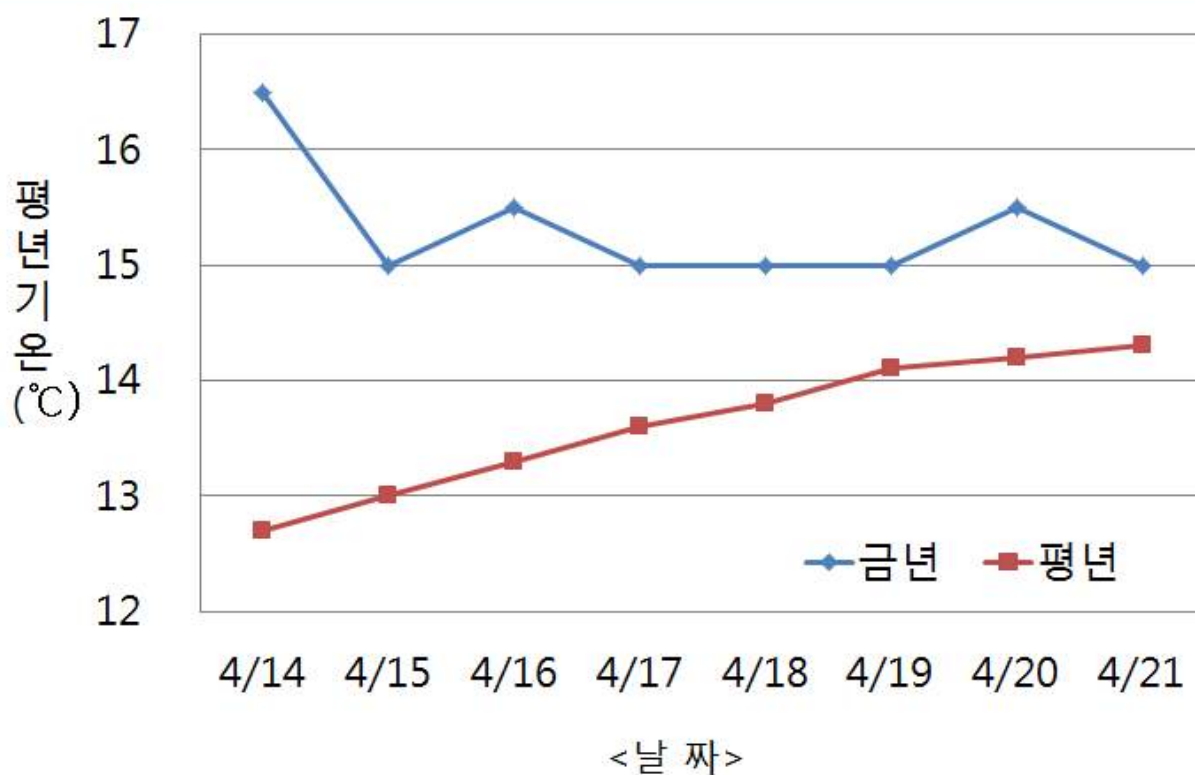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15.3	13.6	1.7	18.8	17.8	1.0	11.9	10.1	1.8	4.0
4. 14.(목)	16.5	12.7	3.8	20.0	16.9	3.1	13.0	9.1	3.9	3.3
4. 15.(금)	15.0	13	2.0	19.0	17.3	1.7	11.0	9.3	1.7	2.3
4. 16.(토)	15.5	13.3	2.2	19.0	17.5	1.5	12.0	9.7	2.3	3.5
4. 17.(일)	15.0	13.6	1.4	18.0	17.8	0.2	12.0	9.9	2.1	3.7
4. 18.(월)	15.0	13.8	1.2	18.0	18.0	0.0	12.0	10.2	1.8	4.2
4. 19.(화)	15.0	14.1	0.9	18.0	18.2	-0.2	12.0	10.5	1.5	5.2
4. 20.(수)	15.5	14.2	1.3	19.0	18.2	0.8	12.0	10.8	1.2	5.3
4. 21.(목)	15.0	14.3	0.7	19.0	18.4	0.6	11.0	10.9	0.1	4.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동향(관측정보)

마늘·양파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

□ 양 파

- 조생종 : 전남 남부 및 제주도 적기수확 실시
- 중·만생종
 - 생육이 좋아 질소질 위주의 웃거름을 줄 경우 병해 및 청립주 발생 우려
→ 웃거름 주기 금지
 - 노균병, 총채벌레 등 적기 방제 실시
 - 구비대기 관수시설 점검 및 가뭄 시 관수 실시
 - 남부지역 비닐 위 흙덮기 실시

□ 마 늘

- 난지형마늘
 - 구비대기 대비 관수시설 점검 및 가뭄 우려 관수실시
 - 많은 강우대비 배수로 정비 및 남부지역 비닐 위 흙덮기 실시
 - 잎마름병 등 병해충 방제 실시
- 한지형마늘
 - 지역 및 생육조건에 맞추어 웃거름 주기 실시
 - 밭 포장 가뭄대비 관수시설 점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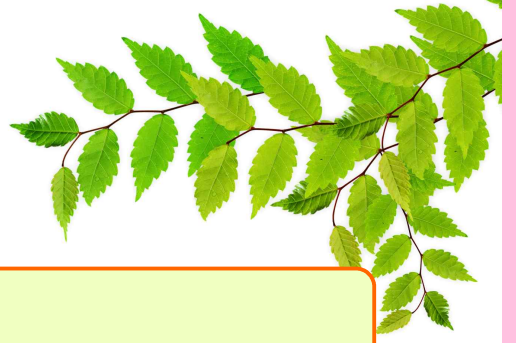


〈마늘 포장 흙덮기 실시〉



〈스프링클러 이용 물주기〉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채류 가격동향 및 전망

□ 일반토마토·참외 4월 출하량 작년보다 많을 전망

- 백다다기오이 4월 가격은 작년보다 높으나, 애호박·청양계 풋고추는 낮을 듯
 - 백다다기오이 4월 가격은 상품 100개에 3만 4천~3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전망
 - 청양계 풋고추 4월 가격은 상품 10kg에 3만 8천~4만 3천원으로 전망
 - 청양계 풋고추 출하량 비슷하나, 하순에 가격 상승 폭 컸던 작년보다 낮을 듯
 - 애호박 4월 가격은 상품 20개에 1만 3천~1만 6천원으로 전망
 - 애호박 출하량은 비슷하나, 작년 가격이 높아 평균가격 낮을 듯
- 일반토마토·대추형 방울토마토 4월 가격은 작년보다 높고, 원형 딸기는 낮을 듯
 - 일반토마토 4월 가격은 상품 5kg 상자에 1만 4천~1만 7천원 전망
 -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많으나, 가격이 낮았던 작년보다 높을 듯
 - 원형 방울토마토 출하량 증가로 가격은 작년보다 낮고, 대추형은 높을 듯
 - 수박 4월 가격은 상품 1kg에 2,500~2,800원으로 작년보다 높을 듯
 - 딸기 4월 가격은 상품 2kg에 1만 2천~1만 4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전망
 - 참외 4월 가격은 상품 10kg에 5만 3천~5만 8천원으로 작년보다 낮을 듯

○ 4~5월 정식면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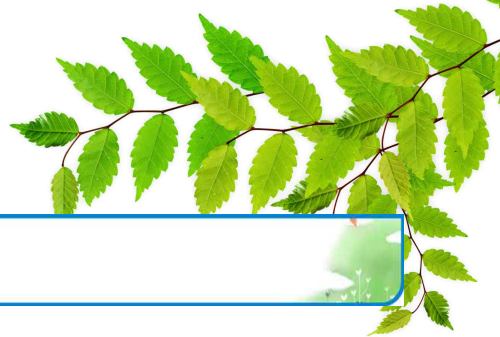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수박 4~5월 정식면적 감소하나, 대추형은 증가할 듯
- 원형 방울토마토 정식면적 4월에는 감소하나, 5월은 소폭 증가할 듯
- 백다다기오이·애호박 4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하나, 5월에는 증가할 듯
- 취청오이·풋고추(청양 녹광) 4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하나, 5월은 감소할 전망

○ 과채류 4~5월 정식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일반 토마토	원형방울 토마토	대추형방울 토마토	백다다기 오이	취청오이	애호박	청양계 풋고추	녹광 풋고추	수박
4월	-0.9	-0.5	1.0	0.3	-0.1	-0.3	0.1	0.2	-1.3
5월	-1.6	0.5	0.7	2.0	-1.1	0.8	-1.7	-1.5	-1.4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4. 11.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4/11)	1주일전 (04/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40,800	42,133	↓ 11.3	↓ 14.1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6,000	184,000	↑ 10.3	↓ 18.5
	고구마(밤)	10kg	29,800	29,200	27,040	28,650	26,537	↑ 4.0	↑ 12.3
	감자(수미)	20kg	32,600	32,200	33,120	37,300	27,137	↓ 12.6	↑ 20.1
채 소 류	배추(월동)	1kg	1,560	1,460	1,172	480	911	↑ 225.0	↑ 71.2
	양배추	10kg	9,500	8,400	7,000	5,975	6,272	↑ 59.0	↑ 51.5
	오이(다다기계통)	10kg	23,000	23,333	36,067	28,389	26,181	↓ 19.0	↓ 12.2
	애호박	8kg	16,800	17,200	28,480	24,450	18,867	↓ 31.3	↓ 11.0
	토마토	10kg	34,400	35,400	41,040	31,750	34,501	↑ 8.3	↓ 0.3
	당근	20kg	27,000	25,600	24,960	22,200	27,667	↑ 21.6	↓ 2.4
	건고추(화건)	60kg	756,000	756,000	780,000	820,000	860,667	↓ 7.8	↓ 12.2
	풋고추	10kg	44,200	51,200	45,840	45,900	42,460	↓ 3.7	↑ 4.1
	마늘(깐마늘)	20kg	169,000	163,000	162,040	107,200	121,267	↑ 57.6	↑ 39.4
	양파	20kg	31,400	30,200	32,640	14,950	13,907	↑ 110.0	↑ 125.8
	대파	1kg	2,390	2,450	3,030	1,540	1,493	↑ 55.2	↑ 60.1
	파프리카	5kg	24,400	24,600	28,200	25,150	30,427	↓ 3.0	↓ 19.8
	멜론	8kg	28,000	27,200	28,040	29,350	42,234	↓ 4.6	↓ 33.7
	방울토마토	5kg	22,600	22,600	36,040	22,200	23,511	↑ 1.8	↓ 3.9
	수박	1개	16,800	17,200	18,600	16,050	16,175	↑ 4.7	↑ 3.9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7,000	37,000	36,840	42,533	51,409	↓ 13.0	↓ 28.0
	배(신고)	15kg	44,000	44,000	44,400	39,200	45,404	↑ 12.2	↓ 3.1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529,000	
		판매 단위	13,400	12,400	10,960	12,900	12,520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29,000	529,000	529,000	532,500	569,533	↓ 0.7	↓ 7.1
	느타리버섯	2kg	13,400	12,400	10,960	12,900	12,520	↑ 3.9	↑ 7.0
	새송이버섯	2kg	8,400	8,600	9,000	8,300	8,477	↑ 1.2	↓ 0.9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023	7,911	8,180	6,434	6,034	↑ 24.7	↑ 33.0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19	1,881	1,840	1,868	1,799	↑ 2.7	↑ 6.7
	닭고기	1kg	5,589	5,290	5,545	5,338	6,015	↑ 4.7	↓ 7.1
	계란(특란)	30개	5,174	5,235	5,131	5,873	5,856	↓ 11.9	↓ 11.6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73	- 0.0	↑ 7.4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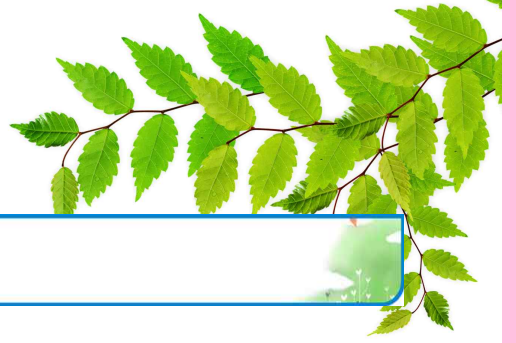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4. 1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754 천원	5,839 천원	4,062 천원	↓ 1.5	↑ 41.7
	거세	7,173 "	6,834 "	5,528 "	↑ 5.0	↑ 29.8
송아지 (6~7월)	암	2,886 "	2,847 "	1,579 "	↑ 1.4	↑ 82.8
	수	3,533 "	3,415 "	2,261 "	↑ 3.5	↑ 56.3
육우(600Kg)		3,636 "	3,688 "	3,562 "	↓ 1.4	↑ 2.1
젖소수송아지(7일령)		253 "	232 "	97 "	↑ 9.1	↑ 160.8
돼지(110kg)		373 "	356 "	396 "	↑ 4.8	↓ 5.8
육계(원/kg)		1,319 원	1,373 원	1,810 원	↓ 3.9	↓ 27.1
계란(원/특란10개)		1,005 "	917 "	1,362 "	↑ 9.6	↓ 26.2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영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봄철 현장 영농기술지원단 운영

- 110개 마을 찾아 병해충 신속 진단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찾아가는 현장 영농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 현장 영농기술지원단은 시 미래농업과장을 단장으로 식량 및 원예 작물·축산·특용작물 등 각 분야 전문지도사 20명으로 지원단을 꾸려 생산농가 현장에서 영농기술 지도와 애로사항 해결 등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한다.
- 지역별로는 돌산 등 6개 읍·면 총 110개 마을에서 진행되며, 품목별 선도농업인에 대한 집중 지도도 함께 이뤄진다.
- 주요 지원사항은 ▲벼씨 종자소독과 못자리 관리 ▲조기재배답 이앙초기 관리 ▲과수 병해충 방제 ▲기상변동에 따른 피해예방 기술지원 등으로 영농현장의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원활동을 벌인다.
- 특히 병해충의 신속 진단과 작물 이상생육 진단을 위해 토양 비료 성분 검사와 작물별 병해충 진단 등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현장 영농기술지원으로 병해충 피해 방지는 물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등 농업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광양시, 강소농 육성 후속교육 실시

- 40농가 참여, 목표 설정과 푸드 아트테라피 자격증 취득에 중점 -

- 광양시는 글로벌 시대에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교육관에서 강소농 40명을 대상으로 후속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기본교육과 3월 심화교육에 이어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이승현 강사, 박지효 강사 등의 강의를 진행된다.
- 교육을 통해 농가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푸드 아트테라피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푸드 아트테라피는 식재료나 완성된 요리로 창작품을 만들면서 작품 속에 숨겨진 사람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치유하는 활동으로, 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소득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이수로 기술보급과장은 농업 소득 10% 향상을 위해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인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후속교육은 우리 시 농업인의 꿈과 자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광양시는 농업인의 역량을 키워 농업인들 스스로 장·단기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농장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별 경영분석,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호응’

- 곡성군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비용 부담과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맞춤형 서비스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보관창고 2동 1760m² 규모에 트랙터 외 65종 19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예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농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로 중경제초기 외 2종 6대를 5,000만원을 투입해 추가 구입하고, 다수의 농업인들로부터 사용수요가 많은 범씨종자소독기 및 선별기를 먼 대여사업소에 적기 공급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 최근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농업기계 임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휴일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 또 임대 후 현장고장 농기계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긴급출동 수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대농업기계 출고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병행 추진하는 등 활발한 대민 서비스를 펼쳐 사랑을 받고 있다.
- 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센터는 임대농기계 사업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협소한 정비시설 신축, 농업기계 안전 사용 상시 교육장 및 부품실 설치 등 2017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 사업 대민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고흥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홍보 나서

- 고흥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실습포장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취급조작 능력 배양을 위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안전사용 및 조정실습 교육 등 홍보에 나섰다.
-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용 경험이 부족한 귀농인과 신규 농업인들 중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교육희망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대 수요가 많은 트랙터, 굴삭기, 관리기 조정 실습교육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이 함께 실시되었다.
- 교육에 참석한 귀농인은 “당장 가장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농업기계를 이용하는데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용하면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지용주 소장은 “이번 교육이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농기계를 활용한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기계사용 교육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고흥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대농기계 42종 83대를 추가 구입하며, 농기계 안전사용 및 자가 수리능력 향상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70여회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맥류 붉은곰팡이병 사전 예방 철저

- 보성군(군수 이용부)에서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맥류 출수기가 일주일 가량 빨라지고 있으며, 또한 잦은 강수로 인해 붉은곰팡이병 발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예방에 전 지도력을 집중하고 있다.
- 붉은곰팡이병(적미병)은 ‘후사리웁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병으로 보리 이삭이 패는 시기에서 이삭이 여물기 이전까지 비가 잦고 95% 이상의 상대습도가 3~5일간 지속될 경우 병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 병이 발생할 경우 이삭이 여물지 않아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 따라서 붉은곰팡이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맥류 포장 습도가 높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삭이 패는 시기나 병 발생 초기에 캡탄 수화제 및 석회보르도액 등 적용 약제를 살포하는 한편 수확 즉시 건조하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영양생장이 좋았고, 이제 출수기 전·후 붉은곰팡이병 방제를 철저히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농업인의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2015년 가을 파종한 맥류 면적은 1,892ha (쌀보리 1,184·맥주맥 467·밀 241)로 약 794백만원의 조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보성군

■ 화순군, 농산물 판매 촉진 위한 농가 정보화 역량 강화

- 컴퓨터 기초부터 농산물 홍보 판매까지 설명회 개최 -

- 화순군 (군수 구충곤)은 정보화 능력 함양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특히 군은 이번 교육과정에 한글·엑셀 기초교육은 물론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운영, 농산품 사진 촬영방법, 블로그 만들기부터 활용까지 획기적인 농업인정보화 교육과정을 개설해 추진하고 있다.
- 그 결과 컴퓨터 기초 과정 등 9개 모든 과정에 대한 교육 신청이 조기에 마감 되는 등 농업인들에 반응이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 교육에 참여한 진혜화씨(화순읍)는 “처음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향상된 나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해 농산물 홍보 및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게 꿈이다”라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의 기초적인 정보화 능력뿐 아니라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홍보·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 함평군, 올해 유용미생물 160톤 공급

- 친환경농업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 증대 기여 -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유용미생물 160톤을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 배양기 4대로 바실러스·슈도모나스·유산균·광합성균·효모 등 5종을 생산해 공급한다.
- 유용미생물은 비료나 농약을 대체해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돕는다.
- 또 발작물인 마늘·양파·부추·딸기와 과수·축산 등에도 두루 사용된다.
- 일주일 전 신청하고 운반용기를 지참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농가에 한해 매주 수·목요일 제공하고, 올해만도 벌써 1,105농가에 39톤을 공급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유용미생물은 병해충 발생 감소, 생육 촉진, 상품성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산악취 제거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편, 함평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만 2,947농가에 530톤의 유용미생물을 공급했다.

* 출처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 강진군, 농산업 창업가공 아카데미로 미래농업 연다

- 농산물 가공 및 상품화로 새로운 소득창출 기반 마련 -

- 전남 강진군은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을 갖춘 창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산업창업가공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 농산업 창업가공 아카데미는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초와 심화반으로 이루어지며 소규모 가공창업,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절차, 농산물 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 교육신청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농산업 창업인(예비창업자)로서 자가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산물가공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1차 교육생 모집은 기초반으로 오는 15일까지 30명을 모집하며 4월 26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다.
-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주관군으로 농산업 가공창업을 통해 강진이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특히, 올해 설치예정인 농산업 창업가공 지원센터를 강진 희망 10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61-430-3642)으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강진군



■ 무안군, 찾아가는 도시 농업교육 실시

- 농업인에 대한 이해와 군민 소속감 고취 효과 -

-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지난 2013년부터 삼향읍 남악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온 도시 농업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2005년 전남도청이 이전해 온 이래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어 군의 주 산업인 농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하고 소속감이 떨어 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도시 농업교육이 올해로 4년차를 맞으면서 주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 무안군은 연 2회 도시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원예와 장 담그기, 관엽식물 심기요령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5월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45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 또한 하반기 2차 교육에서는 관내 농업현장을 방문, 직접 영농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도·농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 무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시 농업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도·농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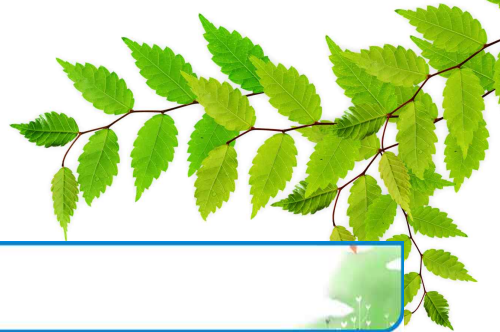
* 출처 : 무안군

■ 장성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쉽게 하세요!’

- 이달초 저온저장고 지원농가에 제품설명회 개최, 사업지침 등 길잡이 역할 -

- 장성군이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나 제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참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이달 초 농업인회관에서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대상 93농가가 모인 가운데 군에서 선정한 6개 시공업체별로 제품설명회를 열고 사업추진 시 농가가 알아야 할 관련법규와 지침 등을 전달했다
- 참여농가는 대부분 과수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장성군은 올해는 농가수요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사업량을 늘려 총 93동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지난 3월 1차 서면평가와 2차 정량평가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 6곳을 선정해 농가들이 각 농가별 작물과 특성에 맞는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군은 지난해부터 일정능력이 이상을 갖춘 업체를 심사를 통해 사업가능 업체로 선정, 그 중 농가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저온저장고를 설치 시 필요한 사업지침과 절차 등을 자세하게 숙지시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했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업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며 “농업인들이 보조 사업을 추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장성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국산 참다래 수출 길 넓힌 ‘별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별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골드키위 수출 길을 넓히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된 품종, 제시골드를 수출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 제시골드는 농촌진흥청이 2002년 육성한 품종으로 국산 골드키위류 중 처음으로 개발된 참다래 품종이다. 속살은 황금색이고 크기는 117g이지만 다른 골드키위에 비해 재배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 당도도 평균 14.8°Brix, 최대 19°Brix에 이르러 뉴질랜드산 보다 품위 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로열티 부담도 없고 기존 품종 대비 품질과 수량성이 높아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 이렇게 개발된 제시골드가 전남 보성군 별교지역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별교가 제시골드의 생육환경에 최적지인데다가, 별교농협 APC가 우수한 참다래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농가 교육과 전량 구매 등에 적극 나선 덕분이다. APC는 출하물량의 원활한 선별 및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최신 설비를 갖췄고 수확기가 짧은 참다래를 체계적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참다래 제시골드 품종을 생산하는 농가는 23곳으로 이들은 연간 120톤을 생산하고 있다.
- 이렇게 생산된 제시골드는 국내 소비시장 한계를 감안해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했다. 지난해 홍콩과 동남아 지역에 16톤의 제시골드가 첫 수출 길에 오른 것에 이어 미국에도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첫 수출을 기념하는 상차식을 개최한 것이다.

- 수출 물량은 약 20톤으로 미 동부지역의 H-마트를 통해 판매됐다. 미국 현지인을 공략하기 위해 저온 저장시스템을 미국 현지까지 유지한 것은 물론 포장도 매장에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구성하는 등 현지 맞춤형 수출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
- 별교농협 APC 관계자는 “해외 수출 길에 오르는 국내산 과일 품목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수출이 되더라도 대부분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소비가 이뤄지지만 제시골드의 미국 수출 길은 현지인들을 직접 공략한다”며 “저온 저장 시스템과 소포장으로 출하하는 것은 이를 위한 하나의 물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수출현장 애로 해결할 기술지원 총력

- 농촌진흥청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 출범 -

- 농식품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가 문을 연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 생산에서부터 안전성, 유통, 저장, 가공,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출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줄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를 4월 6일 공식 출범하며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시는 새로운 수출 품목 발굴과 수출 농산물 품질향상 그리고 해외시장 판촉활동 및 수출 시장조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에 출범하는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본부」는 농촌진흥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기획단 △기초분야 수출지원단 △식량분야 수출지원단 △원예특작분야 수출지원단 △축산분야 수출지원단 △기술실용화분야 수출지원단 등 총 6개단으로 청의 연구·지도전문가 200여 명으로 구성·운영된다.
- 총괄기획단은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각 수출지원단의 활동을 조정·통합하여 수출 경영체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 기초분야 수출지원단은 수출 대상국 맞춤형 농약 안전 사용지침 보급, 수출유망 발효식품 제조기술 지원, 곤충 등 생물자원 이용 수출품목 상품화, 개도국 수출용 농기계 시제품 생산지원을 추진한다.
- 식량분야 수출지원단은 중국 쌀 수출 RPC 및 수출 경영체 현장지원 강화, 식량작물 가공 수출품 원료 국산화 및 제품개발 지원, 들깨 가공용 우수품종 보급 및 원료 재배 단지 육성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 원예특작분야 수출지원단은 채소·과수·화훼·인삼·특작반으로 구성하여 현지인 선호 중소과 등 수출용 우수품종 보급 및 품질 관리 매뉴얼 지원, 수출국 맞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병해충 관리 기술, 신선도 유지기간 연장기술 등을 개발하여 중점 확산한다.
- 축산분야 수출지원단은 수출용 한우·돼지고기·삼계탕의 우수 종축 관리, 고급육 규격생산 기술, 수출상품화 지원, 한국형 씨수소(정액 포함) 번식사양기술 해외실증, 단미·보조사료 인증 및 관리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 기술실용화 분야 수출지원단은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 이전 업체 위주의 바이어 초청 상품 평가·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유통채널 입점·현지생산(OEM) 지원, 수출 희망 우수품종·농기자재 해외 시범농장 운영 등으로 수출 애로 해결을 지원한다.

- 기술지원본부는 내·외부·해외 채널을 통하여 수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우리청 R&D기술을 바탕으로 수출농업 기술을 통합하여 연구개발·시범사업·해외실증을 통해 맞춤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게 된다.
- 그와 동시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장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할랄 등 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수출국 농약안전사용지침」 등 주요 수출정보는 농사로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 안정성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술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경영체·업체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참다래(키위) 한라골드·제시골드 품종과 솥을 이용한 후숙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로열티 절감과 저장·유통 애로를 해소하고 싱가포르·홍콩·일본 등에 150여 톤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청과 전북도청 간 협업을 통해 전북토마토수출사업단 참여농가의 ‘작은뿌리파리’ 피해와 ‘양액급액 조절기술’ 애로를 ICT·천적 활용기술 적용 현장실증과 컨설팅을 통하여 해소함으로써, 올해 3월부터 일본으로 수출이 개시되어 수출 확대 기반을 구축하였다.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황정환 국장은 “농식품 수출은 최근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앞으로 수출현장에 신속히 확산 가능한 기술을 개발 보급해 수출 현장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국산 쌀, 중국 프리미엄 매장 공략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4월 7일(목) 중국에서 고급 유통매장으로 손꼽히는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한 인디고 BHG에서 국산 쌀의 첫 판매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 금번 행사는 작년 9월, 양국간 정상 회담을 계기로 국산 쌀의 對중 수출 물꼬를 튼 이후, 지난 2월 말 중국 국영무역기업인 중량기업(COFCO)을 통해 수출된 72톤 물량에 대한 판매행사이다.
- 이동필 장관은 “우리 쌀이 고급매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농산물로 판매된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중국으로의 우리 쌀 수출을 통해 관세화 등으로 어려워진 우리 쌀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번 수출은 우리 쌀 세계화의 재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쌀 교역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농식품부는 향후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공동 포장지 개발, 백화점이나 온라인 및 TV홈쇼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관측 행사를 통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기념식에서는 한국 쌀의 중국 수출 공로를 인정하여 (주)포스코대우와 COFCO에 대해서 각각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 COFCO 관계자는 “오랜 역사 동안 정치·경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였던 한·중양국이 이번 수출을 계기로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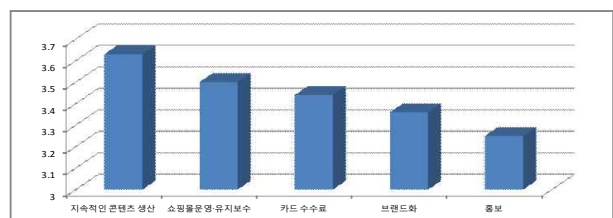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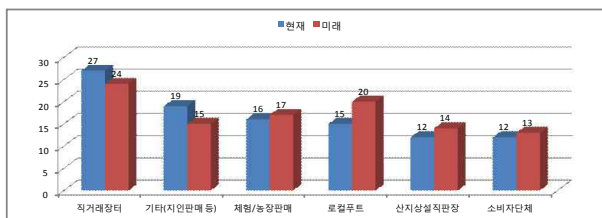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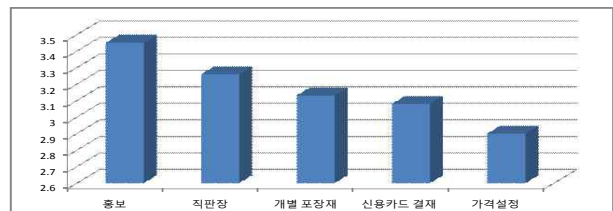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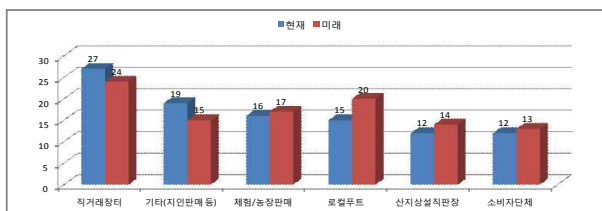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온·오프라인 직거래 선호도 및 장애요인 분석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오프라인 직거래 선호도 우선순위로 현재순위는 직거래장터, 지인 판매, 체험/농장판매, 로컬푸드, 산지상설직판장, 소비자 단체이고, 미래순위는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체험/농장판매, 산지상설직판장, 지인판매, 소비자단체로 미래에는 로컬푸드에 대한 순위가 높아짐
- 오프라인 농산물 직거래 장애요인은 홍보어려움(3.45), 직판장(매대·진열장) 어려움(3.26점), 개별 포장재 활용 어려움(3.13점), 신용카드 결제 어려움(3.08), 가격설정 어려움(2.90) 순으로 나타남.
- 온라인 직거래 선호도 우선순위로 현재순위와 미래순위는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전화, 카카오토티, 입점몰로 나타남
-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장애요인은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3.63), 쇼핑몰운영·유지보수 어려움(3.50), 카드 수수료 문제(3.44), 브랜드화 어려움(3.36), 홍보 어려움(3.25)로 나타남.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직거래 선호도 채널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직거래 개별경영체의 안정적 경영 유도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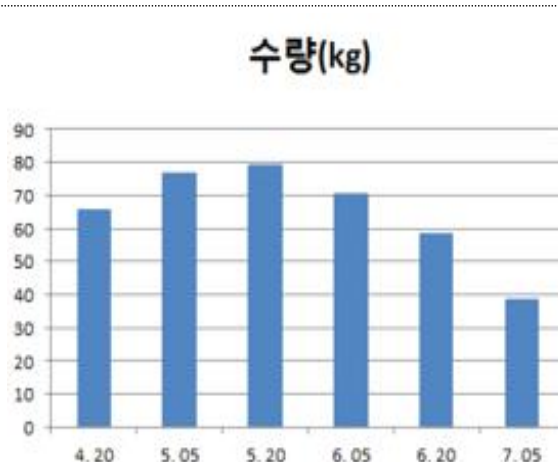
■ 소분지형 참깨 재배에 적합한 재식밀도 및 파종적기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소분지형 참깨 품종의 적정 재식밀도(공시 품종명 : 건백)
 - 관행 55×10(cm)보다 55×15(cm)가 적합
- 참깨 파종적기
 - 1모작 재배 시 5월 5일경까지 파종하면 입모율 향상에 유리
 - 2모작 재배 시 6월 5일경까지 파종하면 안정생산에 유리



재식밀도 : 55×15cm



파종기별 수량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종자비 절감 : 5,916원(17,515원/10a → 11,599원)
- 파종, 숙음시간 및 노력비 절감 : 14.8시간 → 9.8시간 ,43,604원/10a
- 수량증수 : 16,798(원)×1.6(kg) = 26,8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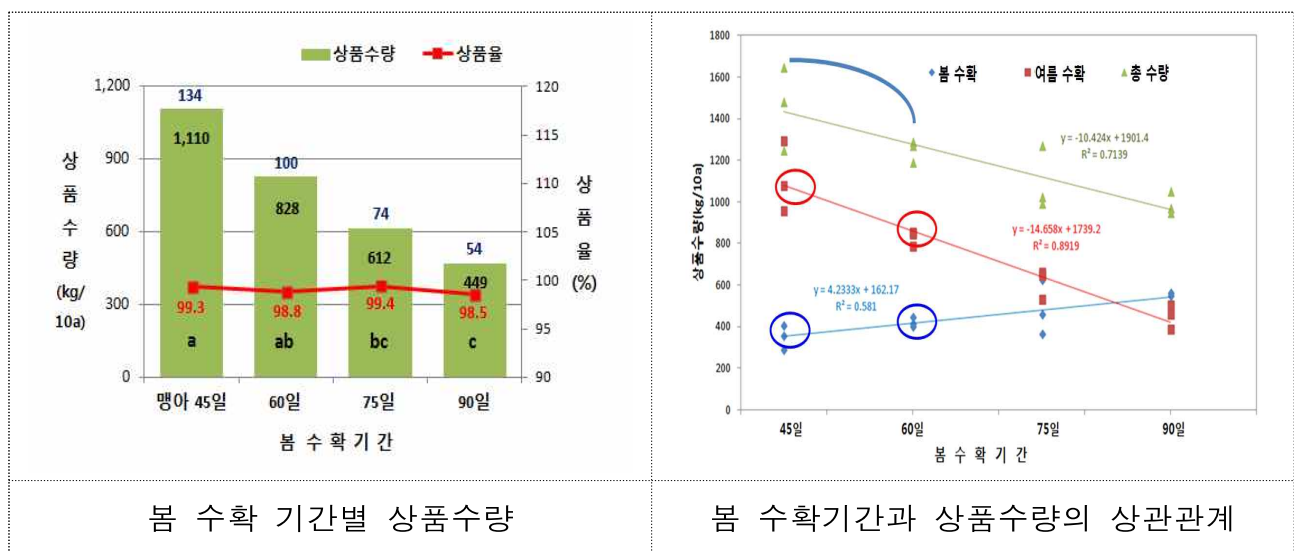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안호섭

■ 아스파라거스 장기재배 다수확을 위한 적정 봄 수확 기간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장기재배 시 근주의 양분 관리를 위한 적정 봄 수확기간 설정

- 봄 맹아 후 45일~60일 → 상품 약경 수량 34% 증수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적정 수확기간 설정으로 상품 약경 수량증대 : 34%(828kg/10a → 1,110)

○ 소득증가액 : 1,824천원/10a

○ 아스파라거스 안정생산 기술개발 및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 아열대 채소 재배시 뿌리혹선충 관리 방안

□ 개발기술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아열대 채소작물은 뿌리혹선충에 매우 약하므로 정식 전 밀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

- 방제가 필요한 밀도는 토양 100cm³ 당 2기 유충 10마리 임.

○ 뿌리혹선충 방제 방법

방제방법	처리시기 및 방법
태양열 소독	- 7~8월에 1개월 이상 토양 소독후 작물정식
벼재배 또는 담수	- 5~9월에 3개월 이상 처리후 작물정식
녹비 작물 재배	- 5~9월에 녹비 재배(2개월) 후 토양환원(1개월) ※ 반드시 뿌리혹선충 방제용 녹비작물을 사용
살선충제	- 훈증성 살선충제 : 선충 고밀도 포장 - 비훈증성 살선충제 : 선충 저밀도 포장 ※ 살선충제 처리시 적정 토양 수분 유지



인디언시금치 건전뿌리



뿌리혹 형성



고사주 뿌리

□ 기술개발 파급효과

○ 정식 전 뿌리혹선충 밀도 관리로 아열대 채소 안정생산 기여

* 연구자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마경철

■ 친환경 벼 종자 소독으로 병해충 사전예방

- 충실한 종자를 고르기 위한 소금물 가리기와 친환경 소독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벼 종자를 통하여 전염되는 벼 키다리병·도열병·세균벼알마름·벼잎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벼농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이 벼 키다리병이다. 못자리에서는 어린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죽기 때문에 농가에서 다자란 모판상자를 버리는 피해가 발생하고, 본논에서도 피해가 발생되면 말라 죽으며 군사덩어리가 형성되어 또 다시 벼알에 감염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
- 문제 병해충인 벼 키다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볍씨를 골라서 정밀한 종자소독을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종자소독을 하기 전에 충실한 종자를 고르기 위해 소금물 가리기를 하며 물 20ℓ(1말)에 소금 4.2kg을 넣어 녹인 후 볍씨를 넣고 잘 저은 다음 물에 뜬 종자를 골라내고 가라앉은 볍씨를 깨끗한 물에 2~3회 씻은 후 소독을 한다.
- 유기농재배 농가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온탕소독이나 석회유황 소독을 해야 한다. 온탕소독은 마른종자를 60℃의 물에다 10분간 온탕 소독을 하고, 석회유황 소독은 온탕소독 후 찬물에 30분간 담근 후 석회유황 50배액에 24시간 침지 후 파종한다.
- 일반재배 농가는 시중 종자소독 약제를 선택해서 반드시 물 온도 30~32℃에서 24~48시간 소독 후 맑은 물로 2~3회 세척 후 물에 담근다.
- 또한 보급종 소독된 종자(새누리벼)는 종자 한 포(20kg)당 물 40ℓ를 넣고, 물 온도 30℃에 48시간 담궈두면 종자소독이 된다.



- 특히 정부 보급종 중 종자소독을 하지 않고 공급한 종자는 농가에서 침종 전에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영농철 농업현장에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종자소독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 50명을 대상으로 4.7일 도 단위 “친환경 범씨종자소독 연사회”를 개최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박혜량 기술보급과장은 ‘철저한 범씨소독을 함으로써 종자에 붙어있는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적기 종자소독을 위해서 소독에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름철 사료작물 파종 하세요

- 옥수수 4월 상·중순, 수단그라스 4월 중·하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사료용 옥수수 및 수수 파종 시기를 맞아 적기에 파종 할 것을 당부했다.
- 여름철 사료작물 중 대표적인 옥수수는 당분과 전분함량이 높고 가축 기호성이 좋아 축산 농가들로부터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로, 알곡과 줄기 잎 전체를 담근 먹이로 만들어 사료로 이용된다.
- 옥수수는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생육기간이 짧아 수량이 감소하므로 전남 지역은 4월 상·중순 까지는 파종을 마쳐야 한다.
- 파종량은 25~30kg/ha이고, 비료는 ha당 질소 200kg, 인산 150, 칼리 150, 퇴비 30톤 정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질소비료는 밀거름과 웃거름으로 50%씩 나누어 주고, 인산과 칼리, 퇴비는 전량 밀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풋베기용 수수류는 옥수수과 함께 생산성이 높은 사료작물로 파종적기는 4월 중·하순이 적당하다.
- 파종량은 ha당 줄뿌림은 30~40kg, 흩어뿌림은 50~60kg으로 증량해서 파종한다. 비료는 질소비료 250kg, 인산 150 칼리 150, 퇴비는 20톤 이상 주되, 질소비료는 밑거름으로 40%, 웃거름으로 30%, 1차 수확 후에 30% 나누어 주고, 인산·칼리·퇴비는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박해량 기술보급과장은 ‘여름철 사료작물을 제때 파종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리플릿 배부 등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도 농기원, 『스마트 팜 현장지원』 본격 출동 !

- 스마트 팜 설치농가 맞춤형 전문컨설팅 추진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4월 6일 스마트 팜 설치 농가와 전문업체·작목별 재배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전남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도내 ICT 융복합 스마트 팜 설치농가는 2015년 156농가, 101ha로 설치되어 수량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농가에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이해부족과 운용기술 미흡, 온실 및 기반시설의 낙후 등으로 스마트 팜 확산이 더디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대학·산업체·선도농업인·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마트 팜의 활용상 문제점을 현장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발달로 지식창출을 가속화하고, 노동력과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고, 삶의 질 개선이 되어 농업분야에서도 활용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농축산식품부에서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 팜 확산에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2014부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 및 생육정보 54종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농가가 정밀하게 환경 제어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토마토 재배 농가에서 수량이 3.3㎡당 65kg에서 105kg으로 61%가 증대되었으며, 관리시간은 50%, 에너지 비용은 약 35%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황인택 팀장은 “스마트 팜 설치 농가와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원의 스마트 팜 실습교육장과 거점지원센터에서 스마트 팜 설치 전문업체·작목별 재배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작물생육의 최적관리 및 시설내 정밀 환경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애로 중심의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최고 품질벼 하이아미 완전미 수량 높이려면

- 6월 중순에 모내기 하면 완전미 수량 5~9% 높일 수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중부 평야지에서 최고 품질벼 품종 ‘하이아미’의 모내는 시기를 기존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으로 늦추면 완전미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2008년에 개발한 ‘하이아미’는 쌀 외관 품위와 밥맛이 좋은 최고 품질 밥쌀용 품종이다.

- 주로 경기도 등 중부 평야지에서 재배하며, 지난해 재배 면적은 1만 5,398ha로 꾸준히 느는 추세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하이하미’의 모내는 시기에 따른 쌀 수량과 완전미 수량을 조사한 결과, 쌀 수량은 5월 25일 대비 5월 10일, 6월 9일, 6월 24일 모내기에서 100~101%로 비슷했다.
- 반면, 완전미 수량은 5월 25일 모내기에 비해 6월 9일, 6월 24일 일 때 각각 5, 9%씩 늘었다
- 이는 완전미 비율이 높아지면서 완전미 비율도 늘었기 때문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도정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부 평야지에서 ‘하이하미’를 6월 중순경 모내기하면 8월 하순까지 이삭이 패기 때문에 안전한 수확이 가능하다. 벼의 이삭이 패는 시기는 6월 9일에 모내기했을 때 8월 20~26일, 6월 24일 모내기했을 때 8월 29일~9월 2일이었다.
- 중부 평야지에서 이삭 패는 시기가 9월 초 이후로 늦어지면 가을 저온 내습에 의한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이때 모내는 포기 수는 3.3㎡당 70주, 파종량은 육묘 상자당 130g이 알맞다.
- 3.3㎡당 80포기에 비해 70포기에서 완전미 수량이 3~8% 늘었고, 90포기에서는 2~4%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육묘 상자당 파종량을 130g보다 늘리면 포기당 모 개체 수가 많아져 생육 중·후기에 통풍이 좋지 않아 병해충 발생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밀파(배게 뿌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배환경과 양운호 박사는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역에서 모내는 시기는 벼 생육 단계별로 주어지는 기상 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상자당 과종량은 포기당 모 개체 수, 벼 생육, 수량 및 품질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며, “지역 환경과 품종 특성에 맞춰 가장 알맞은 시기에 벼를 재배하는 것이 쌀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검정쌀과 붉은쌀은 씨앗 담그는 기간이 달라요

- 품종별 씨앗 담그는 기간, 발아기 사용 등 안전 육묘 지침 준수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흑미(검정쌀)와 적미(붉은 쌀)가 같은 유색미라도 씨앗 담그는 기간을 달리해야 한다며 품종별 씨앗 담그는 요령을 소개했다.
- 흑미는 적미와 달리 종자가 가벼워 씨앗 담그기를 할 때 물에 뜨는 종자가 많아 싹이 늦게 튼다. 따라서 씨앗 담그는 기간이 길어지고, 물 온도가 20℃ 이하면 싹이 트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흑미는 물 온도를 30~32℃로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발아가 빠르고 발아율이 높은 발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흑광·흑남·흑설은 4~5일, 신토흑미·신평흑찰은 6~7일, 흑진주는 8일, 조생흑찰·눈큰흑찰은 10~11일 정도로 일반 벼보다 품종에 따라 씨앗을 2~8일 정도 더 담근다.
- 이처럼 흑미는 품종에 따라 씨앗 담그는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싹이 텄는지 확인한 다음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 반면, 적미인 적진주·홍진주·건강홍미 등은 충실한 종자 비율이 88% 정도로 높아 물에 뜨는 종자가 적어 일반 벼와 같이 30℃ 물에 2~3일 정도 씨앗 담그면 90% 이상이 발아한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김상열 연구관은 “유색미인 흑미·적미는 품종 특성 따라 싹 틔우는 방법 등이 달라 품종별 안전 육묘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육묘를 잘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매실 낙과 원인, 복숭아씨살이좀벌 제때 방제하세요

- 열매가 1cm 정도인 시기, 맑은 날 한낮에 약제 뿌려야 효과적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매실 수확기에 열매 떨어짐의 원인인 복숭아씨살이좀벌의 알 낳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제때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 2012년 전북 순창에서 복숭아씨살이좀벌에 의한 매실 피해가 처음 확인된 이래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매실 주산지인 남부 지역에서는 지난 몇 해 동안 평균 피해 과율이 33~67%에 달했다.
- 복숭아씨살이좀벌은 한 해에 한 번 발생하는 해충으로, 애벌레가 매실과 살구의 씨앗 속에서 종자를 갉아먹고 산다. 피해 초기에 열매에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없으나 수확 직전에 표면 일부가 갈색으로 움푹 들어가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이 해충은 피해 열매의 씨앗 속에서 애벌레로 겨울을 난 후 이듬해 봄 어른벌레가 돼 어린 과실의 씨방 속에 알을 낳는다.



-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과일의 씨방을 먹고 자라며, 이렇게 피해를 입은 매실은 껍질이 썩고 수확 전에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다.
- 이처럼 애벌레가 딱딱한 씨앗 속에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종자가 굳은 이후에는 약제를 뿌려도 효과가 낮아 어른벌레가 어린 과일 속에 알을 낳는 시기에 맞춰 방제를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은 순천대학교 홍기정 교수와 함께 남부 지역의 매실 주산지에서 복숭아씨살이좀벌 어른벌레의 발생 시기와 활동 양상을 조사했다.
- 그 결과, 지난해 피해를 입은 씨앗 속에서 겨울을 난 애벌레가 새로 열매가 열리는 시기부터 어른벌레가 돼 나타나며, 열매 크기가 1cm 정도인 4월 하순에 가장 많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 어른벌레는 흐린 날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최고 기온이 25℃ 이상으로 맑고 화창한 날에 왕성하게 활동한다.
- 특히, 어른벌레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사이에 교미하며, 기온이 높은 한낮에 과일 속에 알을 낳는 것이 관찰됐다. 이 해충은 어른벌레 기간을 제외하고 알·애벌레·번데기 생육기에는 씨앗 속에 살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낮다.
- 어른벌레가 어린 과일 속에서 알을 낳는 시기, 즉 과일 크기가 1cm 정도 되는 때를 중심으로 약제를 2~3회 충분히 뿌려야 한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양창열 농업연구사는 “과일이 1cm 정도 되는 시기의 맑은 날 한낮에 약제를 뿌리면 왕성하게 활동 중인 복숭아씨살이좀벌 어른벌레의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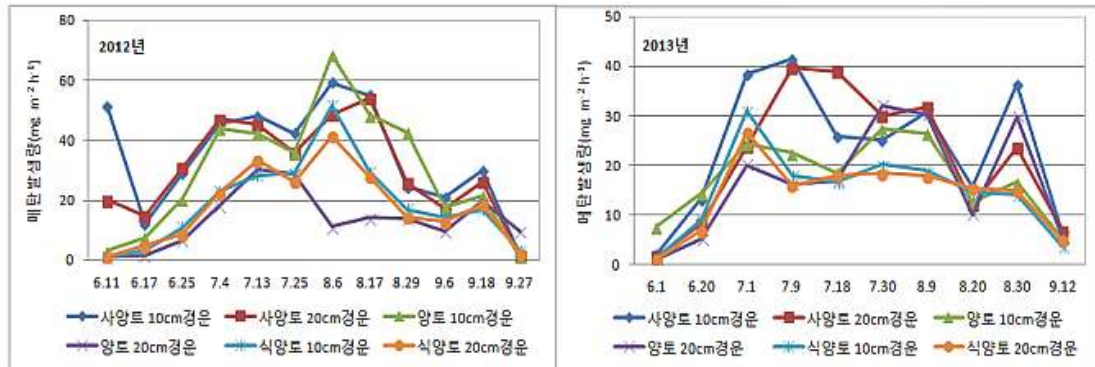
■ 화학비료 대체할 풋거름 작물 경운 방법 소개

- 4월 말~5월 중순 20cm 깊이로 경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땅심을 높이기 위해 겨울 동안 재배하는 풋거름 작물의 알맞은 경운(흫갈이) 시기와 방법을 소개했다.
- 논에서의 벼짚 수거량이 해마다 늘면서 논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줄어 유기물 공급 대책으로 풋거름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
- 겨울에 재배한 풋거름 작물을 농경지에 되돌려 주면 토양의 물리·화학적인 성질을 개량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물론,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등 유기물 자원의 역할을 한다.
- 풋거름 작물의 토양 환원 시기는 여름작물 재배를 시작하기 약 20일 전인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며, 이때 경운 깊이를 20cm 정도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토성별, 경운 깊이별 온실가스 발생과 유기물 환원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양토(모래참흙) 양토(참흙), 식양토(질참흙)의 논토양에서 겨울 동안 헤어리베치를 재배한 후 10cm, 20cm로 경운 깊이를 달리해 실험한 결과, 풋거름 생산량은 10a당 563~1,139kg로 식양토 < 양토 < 사양토 순이었고 헤어리베치를 토양에 환원 후 초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개 토성 모두 10cm 경운보다는 20cm 경운에서 현저히 낮았다.
- 20cm 깊이 경운으로 메탄 발생량은 6~35%가 줄었으며, 발생 시기도 10cm 경운보다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헤어리베치 풋거름 작물을 재배하면 식물체가 자라는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에 환원되면 벼에 양분을 공급함으로써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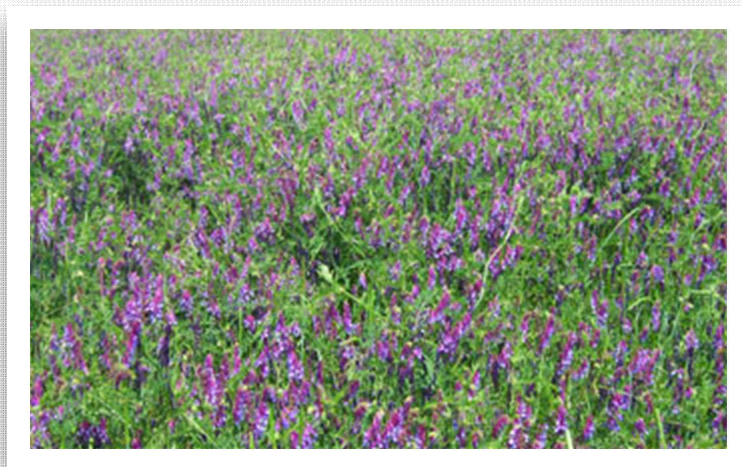


※ 벼 생육 기간에 토성별 경운 방법에 의한 메탄 발생량의 변이
(2012~2013, 국립식량과학원)



- 헤어리베치는 식물체가 갖고 있는 질소 함량이 36~40g/kg이며, 생초로 10a당 1.5톤~2톤을 논에 넣으면 화학비료(질소비료 9kg/10a)를 주지 않아도 된다.
-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이진휘 과장은 “앞으로도 풋거름 작물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경운 방법뿐만 아니라 물 관리, 영농 관리 등 다양한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aT, 4월 배추·무 가격안정에 박차”

- 정부비축수매품 도매시장 집중방출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최근까지도 높은 가격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와 무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도매시장에 비축수매품을 집중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겨울에서 봄으로 작형이 전환되는 3~4월은 해마다 가격이 불안정한 시기로서 배추는 올해 시설봄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4월 하순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는 월동무 저장출하량 감소로 인해 당분간 높은 시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aT는 올해 초 한파와 폭설 등의 기상이변으로 3월 이후 겨울배추와 겨울무 공급량 감소가 예상되어 해당 품목의 수매비축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3월 4일부터 4월 4일에 걸쳐 5차례 입찰을 통해 겨울배추 3,500톤과 겨울무 5,500톤을 수매한 바 있다. 수매품은 수급동향에 따라 지난 3월 11일부터 방출을 시작했고, 4월 5일부터는 매일 180톤에서 200톤까지 가락동 도매시장으로 집중공급에 나섰다
- aT에 따르면 3~4월은 시기적으로 주요 채소류의 생산이 일부지역으로 제한되는 반면 수요는 지속되는 단경기로서, 이 기간 동안의 채소류 가격 강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한파로 수급이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가격 안정대책을 수립해 이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곤충산업 규모를 '20년까지 5,000억원까지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곤충이 농업의 블루오션을 뛰어넘어 소득농업으로 도약하고,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계획에는 우수 종충 보급체계 등 사육기반 조성, 식용사료용 제품개발 RD 확대, 온·오프라인 소비채널 확보를 통한 적극적 수요 창출 등을 통해 곤충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생산과 소비·유통체계 고도화, 규제개선 및 인력육성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10년부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제1차 5개년 계획('11~'15)을 통해 곤충산업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 최근에는 곤충이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등 일반 소비자, 예비 농업인,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특히, 곤충자원은 용도의 확장에 따라 지속적 시장성장*이 예상되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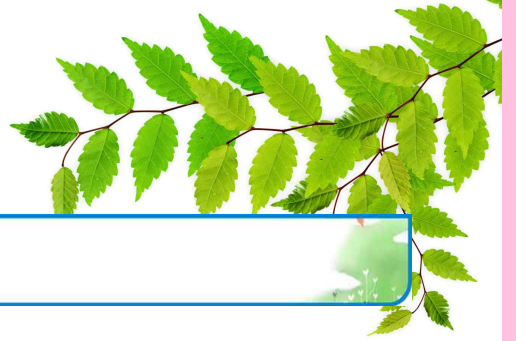
* 세계 시장규모 : ('07) 11조원 → ('20) 38

- 다만, 아직까지 곤충 산업 전반의 성숙도는 낮은 편으로 곤충 사육농가의 시설 및 생산규모는 다른 농업에 비해 영세하고,

* 사육시설의 70%가 비닐하우스 패널 형태이며, 사육규모는 200㎡ 이하가 절반 이상

- 곤충자원을 활용한 최대시장은 지역행사용 소재로, 그 규모가 70%를 차지하여, 시장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 그간 정부는 곤충산업발전 T/F 협의, 전문가 토론회, 연구용역 (KREI) 등을 통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이번 계획에서는 '수요가 견인하는 미래 농업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여, 곤충산업 시장규모는 현재 약 3,00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약 1.7배 정도로 확대하고, 현재('15말 기준) 724농가인 곤충사육 농가는 2020년까지 1,200농가로 약 1.65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대일 수출 냉동식품, 세균 수 검사 철저

- aT 도쿄지사, '대일 수출 냉동식품 위반사례 및 성분규격' 보고서 발표 -

- 대일 수출 냉동식품의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대장균과 같은 세균 수 규격기준에 따른 위생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도쿄지사는 최근 발표한 '대일수출 냉동식품 위반사례와 성분규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에 수출된 농식품의 통관보류 및 검역 불합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송이나 폐기가 됐던 35건의 농식품 중 17건이 대장균 양성판정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된 냉동식품으로 조사됐다.
- 불합격 판정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15건이 굴과 같은 냉동수산물이며, 이 중 11건이 대장균 양성반응 판정, 4건은 일반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었다. 나머지 2건은 냉동나물로 이들 역시 대장균 및 일반세균 검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 aT 도쿄지사는 후생노동성이 올해부터 수입식품 검역 시, 대장균 모니터링과 같은 세균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대일 수출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제조 작업장 내 위생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재 일본정부는 수입 냉동식품을 무가열 섭취 냉동식품·가열 후 섭취 가능한 열처리 냉동식품·생식용 냉동식품·기타 총 네 가지로 분류한 후, 관련 검사를 실시 중이다. 네 품목 모두 대장균 검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한다. 세균 수는 제품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10만/g 이하지만 마지막 품목은 300만/g 이하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뉴욕타임즈 ‘비빔밥’ 레시피 소개

- 유명 채식주의자 인용 비빔밥 장점 및 사진 전면 게재 -

- 미국의 언론매체인 뉴욕타임즈가 최근 음식 면 톱기사로 비빔밥을 게재해 큰 주목을 받았다.
-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4일자에 현지 유명 채식요리 연구가 루카스 보르거(Lukas Volger)와 함께 채식주의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채식요리를 소개하며 우리 비빔밥을 함께 언급했다.
- 주목할 점은 기사에 소개된 다양한 음식 중 비빔밥 사진을 전면에 배치하는 등, 우리 비빔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는 것. 또한 우리 비빔밥을 아시안 요리를 대표하는 채식요리로서, 음식 특징과 조리 방법 등을 다양한 내용을 상세히 게재했다.
-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고추장을 단순히 칠리소스(Chile paste) 또는 핫소스(Hot paste) 등으로 표기했는데, 이번에는 매운 한국 소스 (Spicy Korean Fermented Chile paste, gochujang)라고 정확히 표기하는 등 우리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4. 11.(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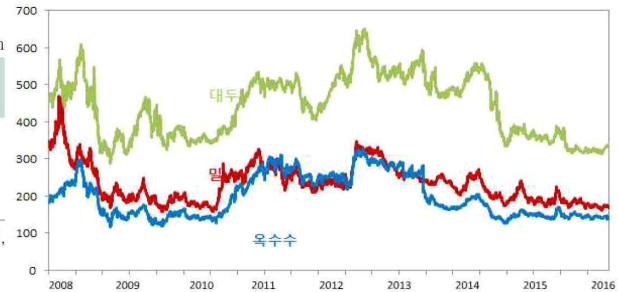
기술적 매도세 유입으로 곡물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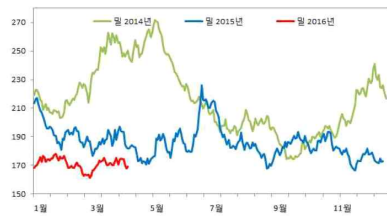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4.8)	전일대비	전일평균 ('16.3)	2015 평균
밀	169.09	▲0.7%	170	186
옥수수	142.59	▲0.2%	143	148
대두	336.79	▲1.4%	327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5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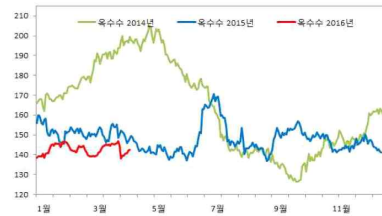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주간 최저치로 하락한 이후 미 대평원의 건조 기후 예보로 숏커버링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마감하였음. 원유 강세로 추가적인 가격 지지가 있었으나 미국 겨울 밀 작황 호조와 수출 수요 부진으로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았음. 로이터통신 분석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다음주 월간보고서에서 밀 재고량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일주일 전 가격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하였음. 6세션 연속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지난주 미 농무부의 옥수수 파종면적 발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음. 아르헨티나는 연료 사용 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가솔린에 사용되는 에탄올 혼합을 두 배로 늘릴 것으로 보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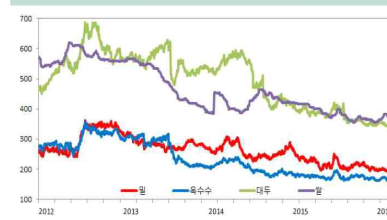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대두유 매도/대두박 매수 스프레드 거래로 인한 대두박 가격 상승의 지지를 받아 1% 이상 상승하였으며, 원유 강세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지지하였음. 대두유 선물가격은 말레이시아 팜유 약세로 하락한 반면, 대두박 선물가격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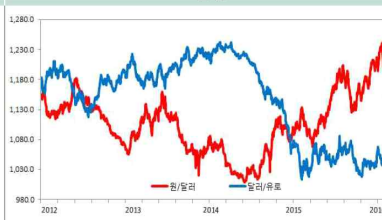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산 밀 수출가격은 수출 둔화와 후호적인 기상 예보로 하락
- 국제유가는 미 원유 시추기 수 감소, 러시아 석유 생산 감소 전망,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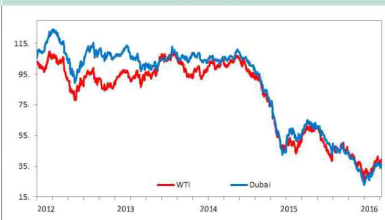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90	▼1.6%	환율	원/달러	1,154.5	▼0.1%
	옥수수	163	▲1.2%		달러/유로	1.1373	▼0.2%
	대두	347	▼0.6%	국제유가	WTI	39.72	▲6.6%
	쌀	380	—		Dubai	36.71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5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4.7(수출가격), '16.4.8(환율), '16.4.8(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sonmy@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16년 버섯재배(초급) 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전남 버섯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버섯재배 실용기술 교육 -

□ 교육개요

- 교육기간 : 2016. 4. 22. ~ 2016. 6. 10.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6시)
- 장 소 :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전남산림자원연구소)
- 모집대상 : 30여명(전남 도내 거주하며 평일 교육 참여가 가능한 자)
- 교 육 비 : 50,000원(교재비, 강사료 등 포함)

* 커피·음료 등 다과류, 현장실습 이동(차량), 식사비 등은 교육생 자체 부담

- 운영방법 : 외부 전문강사 초빙
- 교육내용 : 버섯재배 기초이론 및 현장 견학 등 8차시 35시간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6. 4. 7.(09:00) ~ 4. 14.(18:00), 선착순 방문·우편·전자메일
- 접수방법 : 교육지원 신청서 및 이력서(붙임 서식) 작성 제출

※ 접수마감 일시(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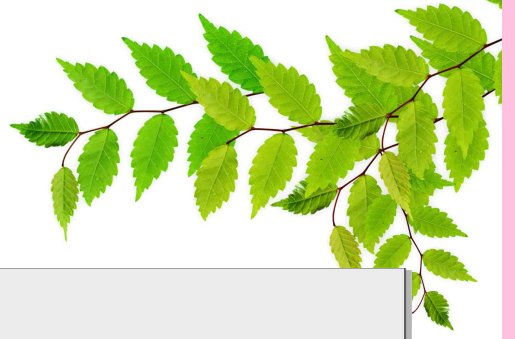
- 접수장소 및 문의 :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시험연구팀

- 주 소 : (우)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다도로 7

- 연락처 : 전화 061)338-4240 전자우편 : yesrok@korea.kr

- 결과발표 : 2016. 4. 15.(금) 14:00 (연구소 누리집 공고)

* 출처 : 전라남도



◆ 병해충 강하고 밥맛 좋은 벼 ‘청품’

- 기존 ‘삼광’보다 출수기 5일 빠르고 줄무늬잎마름병 등 복합내병성 우수 -

- 농촌진흥청이 밥쌀용 품종인 ‘청품’을 개발해 2018년부터 농가에 보급한다.
- 이번에 개발한 청품은 중생 품종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쌀 품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삼광’처럼 복합내병성이 강하고 밥맛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량은 10a당 536kg이며, 벼 키는 79cm로 다른 벼 품종보다 작아 쓰러짐에 강하다. 가장 큰 특징은 출수기가 삼광보다 5일 정도 빠르다는 점이다.
- 이와 같은 강점으로 청품은 개발되자마자, 농진청이 지난 2003년부터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전성이 높은 벼 품종을 선정하는 ‘최고 품질 벼’에 이름을 올렸다. 농진청은 농가 실증재배 및 종자 증식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원용재 박사는 “앞으로 ‘청품’과 같이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면서 밥맛도 좋은 쌀을 개발해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간

전남농업정보

8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